

『進學圖』와 『聖學十圖』 圖說의 比較 研究*

A Comparative Study of Diagrams of *Jinhak-do* and *Sunghak Sib-do*

이 태 호 (Lee, Tae-Ho)**

송 일 기 (Song, Il-Gie)***

노 기 춘 (Roh, Ki-Chun)****

◁ 목 차 ▷

- | | |
|------------------------------|-----------------------------|
| 1. 緒 論 | 3.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圖와 圖說의 比較 |
| 2.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의 比較 | 4. 結 論 |
| 2.1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 | <참고문헌> |
| 2.2 『進學圖』의 편성 구조 | |

< 초 목 >

본 연구는 『進學圖』의 독창성을 규명해 보기 위해,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편성 구조 및 상호 관련성이 있는 9개의 圖와 圖說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편성 구조를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는 2분 구조(1-5圖, 6-10圖)와 3분 구조(1-2圖, 3-4圖, 5-10圖) 등 2개의 구조로 모두 聖人의 學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 → 其他 등의 5분 구조로 초학자들이 학문을 닦아 나가는 단계별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9개 圖와 圖說을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의 圖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수정 보완하여 『進學圖』에 채용한 것은 6개 圖이며, 權春蘭의 독창적인 圖는 3개 圖로 밝혀졌고,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權春蘭이 이를 보완 확대하여 재편한 것은 7개 圖說이며, 완전히 다른 글로 대체된 것은 2개 圖說로 밝혀졌다. 따라서 『進學圖』는 退溪의 『聖學十圖』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圖와 圖說을 적절히 보완하여 재편하거나, 또는 독창적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要語: 진학도, 성학십도, 권춘란, 회곡, 이황, 유교도상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2-H00001).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thlee@mj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rohide@hanmail.net) (공동저자)

접수일: 2010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o verify the originality of *Jinhak-do*(進學圖), this study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Sunghak Sib-do*(聖學十圖) and *Jinhak-do*, and 9 diagrams and comments, closely related.

A comparison of their structures shows that while *Sunghak Sib-do* is organized into two(pl.1-5, 6-10) and three(pl.1-2, 3-4, 5-10) divisions, aiming at a sage's study, *Jinhak-do* has 5 divisions such as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 → 其他', which help a novice study from the beginning.

An analysis of 9 diagrams and comments reveals that out of 9 diagrams that Gwon Chun-ran(權春蘭) adopted in *Jinhak-do*, 6 were based on the diagrams of *Sunghak Sib-do*, and three were his original diagrams. It is also found that Gwon Chun-ran elaborated and expanded 7 comments of diagrams, based on *Sunghak Sib-do* and completely replaced 2 comments in his own words. Therefore *Jinhak-do* did not simply quote *Sunghak Sib-do* written by Yi Hwang, but relevantly expanded and supplemented its content, and added his original diagrams and comments, when needed. And it covered much wider area as well.

Key words: *Jinhak-do*, *Sunghak Sib-do*, Gwon Chun-ran, Yi Hwang, Confucian diagram

1. 緒 論

宣祖代의 文臣이자 학자인 晦谷 權春蘭(1539~1617)이 초학자들의 학문을 돕기 위하여 찬술한 「進學圖」는 한국의 유학사에서 ‘圖’ 중시의 학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退溪 李滉의 「聖學十圖」가 저술된 이후 처음으로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0여년이 지난 후인 1778년 비로소 4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평생토록 학문에 진력하였던 權春蘭이 만년에 자신의 원숙한 학문을 26개 圖와 圖說로 집약시킨 대표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현재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상태이다.¹⁾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權春蘭의 원숙한 학문적 성과물인 「進學圖」에 대한 1단계 연구로 저자의 生涯, 「進學圖」의 편찬 동기와 간행 배경, 「進學圖」의 서지적 특징 및 전체적인 편성 체제, 26개 圖의 내용과 圖像者, 圖說者, 인용문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혀보았다. 이번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속편의 성격으로 「進學圖」의 독창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退溪의 門人인 權春蘭이 退溪가 저술한 「聖學十圖」의 영향을 받아 이 책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聖學十圖」에 단지 16개의 圖를 추가하여 증편한, 일종의 「聖學十圖」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進學圖」를 간행할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進學圖」의 간행을 주도하고, 이 책의 <序文>을 쓴 安復駿의 序文에 “아! 후자는 퇴옹의 심도가 이미 그 지극함을 다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퇴옹의 성학심도에 16개 도를 첨가하여 크게 확대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²⁾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와 「進學圖」의 편성 구조를 상호 비교하여 「進學圖」의 편성 구조의 특징을 밝혀보고, 「進學圖」와 「聖學十圖」

1)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進學圖」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선행의 연구가 있으니 참고바람. 유권중,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철학탐구』 제26집(2009), 1-33. ; 宋日基·盧基春, “權春蘭의 「進學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6), 151-183.

2) 「進學圖」<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2張(左5-7行). “懿哉或疑退翁十圖已極其至此又以十六圖添之者無乃太廣云.”

의 圖와 圖說 가운데 상호 관련성이 있는 圖와 圖說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進學圖」의 독창성 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의 비교

「進學圖」와 「聖學十圖」는 모두 앞에 圖를 제시하고, 이어서 圖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先圖後說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10圖로 이루어진 「聖學十圖」와 26圖로 편성된 「進學圖」의 편성 구조를 분석하여 「進學圖」의 편성 구조의 독창성 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2.1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

退溪는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를 2分 구조와 3分 구조 2개의 구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³⁾

첫째, 2分 구조는 1도~5도의 前5圖와 6도~10도의 後5圖로 양분하였는 바, <第五 白鹿洞規圖>의 末과 <第十 夙興夜寐箴圖>의 末에서 각각,

“이상 5도는 천도에 근본을 두고 있지만, 공효는 인륜을 밝힘에 있다.”⁴⁾

“이상 5도는 심성에 근원하여 일상생활을 힘쓰게 하고, 경외심을 높이는 데 그 요체가 있다.”⁵⁾

하였다. 이는 곧 1도에서 5도가 천도에서 인륜에로의 구조라면, 6도에서 10도는 심성에서 경에로의 구조로, 1도에서 10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륜과 경을 존재론

3)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05-308.
李滉 지음,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서울: 홍익출판사, 2004), 140-147.
4)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以上五圖本於天道而功在明人倫懋德業.”
5)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以上五圖原於心性而要在明日用崇敬畏.”

적·심성론적 근거 위에 정초지우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⁶⁾⁷⁾

둘째, 3分 구조에서는 3·4도를 중심으로 하여 앞의 1·2도와 뒤의 5도~10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第四 大學圖>의 自說에서

“대개 위 두 그림은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도를 다하는 극치의 곳으로서 소학과 대학의 표준과 본원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명선, 성신, 송덕, 광업을 힘쓰는 곳으로서 소학과 대학의 전지와 사공이 되는 것입니다.”⁸⁾

라고 하였다. 이는 곧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전체로 보고, 1도와 2도는 존재론적으로 3도와 4도의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 근원이면서, 3도와 4도의 학문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는 궁극적 지향처로서 그 표준이 되며, 5도~10도는 각 도를 공부의 대상으로 보면 학문의 밭일 수 있으며, 공부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라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⁹⁾¹⁰⁾

그러므로 退溪의 「聖學十圖」는 1~5圖의 前5圖와 6~10圖의 後5圖로 兩分하여 人倫과 敬을 존재론적·심성론적 근거 위에 정초지우는 구조와 3~4圖를 중심으로 1~2圖, 5~10圖로 3分하여 1~2圖는 3圖와 4圖의 본원이며, 5~10圖는 3圖와 4圖의 밭이며 결과로 귀속되는 2개의 구조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進學圖」의 편성 구조

「進學圖」의 편성 구조에 대해서는 安復駿이 쓴 「進學圖」의 <序文>에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序文>에 의하면,

-
- 6) 李滉 지음,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서울: 홍익출판사, 2004), 144.
 7) 금장태 교수는 ‘철학적 구조’라 하고, 이광호 교수는 ‘이론적 구조’로 각각 명명하였다.
 8)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蓋上二圖是求端擴充體天盡道極致之處爲小學大學之標準本原下六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
 9) 李滉 지음,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서울: 홍익출판사, 2004), 145-147.
 10) 금장태 교수는 ‘교육적 구조’라 하고, 이광호 교수는 ‘실천 학문적 구조’로 명명하였다.

“<太極統體人事圖>로 첫 편을 삼고, <性理氣圖>와 <心統性情之圖>로 性·氣·心·情을 밝히며, <張子西銘圖>·<東銘戲過圖>·<四勿箴圖>·<克己銘圖>·<白鹿洞學規圖>·<敬齋箴圖>·<夙興夜寐箴圖>·<小學內外篇目圖> 등으로 用工의 先後를 밝히고, <中庸>·<大學>·<論語>·<孟子>·<詩經>·<書經>·<周易>·<春秋>·<丹書> 등의 圖로 옛 성인들이 후학을 가르치는 큰 교훈을 밝히며, <思無邪>·<人心道心>·<無不敬> 등의 圖는 本書의 아래에 부기하였으며, <聖賢道通傳緒之圖>로서 篇末을 삼았다.”¹¹⁾

라고 하였다. 즉, 『進學圖』는 우주 생성의 기본 원리인 天道를 익힌 다음 性·氣·心·情 등 인간의 심성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仁과 敬을 중심에 두고 초학자들이 학문하는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몸에 체득한 후 聖인들이 남겨놓은 경전을 공부하여 자연스럽게 성현의 발자취를 뒤따르도록 하며, 아울러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는 단계적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進學圖』는 ① 宇宙論(1圖) → ② 心性論(2~3圖) → ③ 用工先後論(4~11圖) → ④ 聖人教訓論 → ⑤ 其他(25~26圖) 등 5분 구조로 초학자들이 단계별로 공부해 나가는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聖學十圖』와 『進學圖』를 살펴 본 결과, 『聖學十圖』는 첫째, 1~5圖와 6~10圖로 2분하여 人倫과 敬을 존재론적·심성론적 근거 위에 정초지우는 구조와 둘째, 1~2圖, 3~4圖, 5~10圖로 3분하여 3·4圖를 학문의 중심으로 보고 1·2圖는 3·4圖의 본원이며, 5~10圖는 3·4圖의 발이며 결과로 보는 2개의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반면 『進學圖』는 1圖, 2~3圖, 4~11圖, 12~24圖, 25~26圖 등으로 5분하여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 → 其他 등의 순서로 초학자들이 단계별로 공부해 나가는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두 책의 편성 구조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책 모두 첫 머리에

11)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2張(右5行-左5行). “既以太極統體人事圖首之而繼以性理氣及心統性情等圖明之又次之以東西銘四勿克己白鹿洞學規敬齋箴夙興夜寐箴小學內外篇目等圖明其用工之先後復以庸學論孟詩書易春秋丹書爲圖以明古聖人指教後學之大訓如思無邪人心道心毋不敬等圖則各附於所出本書之下卒以聖賢道通傳緒之圖爲篇末之歸.”

우주의 생성 원리인 <太極圖>를 배치하여 南宋의 周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近思錄」에서 <太極圖>를 첫머리에 두는 학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편성 구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聖學十圖」의 2分 구조에서는 天道와 心性の 근본 위에 人倫과 敬을 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人倫과 德業을 다룬 2·3·4·5圖는 天道를 다룬 1圖의 다음에 편성하고, 敬을 세우는 8·9·10圖는 心性을 다룬 6·7圖의 다음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의 편성 구조이기 때문에 「聖學十圖」에서 心性을 다룬 6·7圖를 앞으로 당겨 2·3圖에 배치하였고, 「聖學十圖」에서 人倫과 德業을 다룬 2·3·5圖와 敬을 다룬 9·10圖를 「進學圖」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다룬 用工先後論에 4·8·9·10圖로 배치하고, 「聖學十圖」의 4圖는 聖人教訓論의 11圖에 편성하였다.

한편, 「聖學十圖」의 3分 구조에서 退溪는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삼아 3·4圖에 배치하였으나, 「進學圖」에서는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특정화 하지 않고, 小學은 실천규범을 다룬 用工先後論에, 大學은 經典을 공부하는 聖人教訓論에 각각 분리 배치하였다. 다만 小學과 大學을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小學은 用工先後論의 末인 11圖에 배치하고, 大學은 聖人教訓論의 첫 편인 12圖에 편성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聖學十圖」는 天道와 心性の 근본 위에 人倫과 敬을 각각 실현해 나가는 2分 구조(1-5圖, 6-10圖)와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보고 이를 표준, 근원지우는 구조와 학문의 발이며 결과인 구조로 이루어진 3분 구조(1-2圖, 3-4圖, 5-10圖) 등 2개의 구조로 모두 聖人の 學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다. 반면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 → 其他 등의 5分 구조로 초학자들이 단계별로 학문을 닦아 나가는 단계별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進學圖」의 편성 구조는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편성 구조를 아래 <표 1>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편성 구조

2分子조	3分子조	聖學十圖	進學圖	5分子조
天道 ↓	標準本源 ↑	第一 太極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宇宙論
	學問中心	第二 西銘圖	第二 論性理氣圖	↓ 心性論
第三 小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人倫 ↓	↓	第四 大學圖	第四 張子西銘圖	↓
		第五 白鹿洞學規圖	第五 東銘戲過圖	
心性 ↓	田地結果	第六 心統性情圖	第六 四勿箴圖	用工先後論
		第七 仁說圖	第七 克己銘圖	
敬 ↓		第八 心學圖	第八 白鹿洞學規圖	↓
		第九 敬齋箴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
			第十一 小學內外篇日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
			第十三 中庸中和位育之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
			第十五 孟子不動心之圖	
			第十六 詩風雅頌正變之圖	↓
			第十七 思無邪之圖	
			第十八 書典謨訓誥敘次圖	↓
			第十九 人心道心圖	
			第二十 丹書敬義之圖	↓
			第二十一 毋不敬之圖	
			第二十二 易學入門括例之圖	↓
			第二十三 四聖易學之圖	
			第二十四 春秋經世之圖	↓
			第二十五 聖賢道通傳緒之圖	
			第二十六 呂氏鄉約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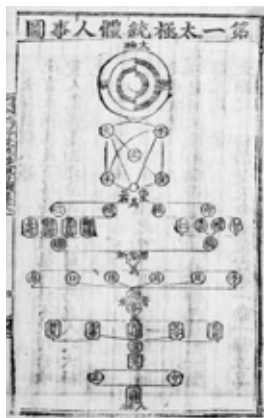
3.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圖와 圖說의 비교

權春蘭은 退溪의 門人으로서 「聖學十圖」를 저술한 退溪의 정신을 이어 받아, 초학자들의 학문을 돕기 위해 「進學圖」를 편찬하였다. 退溪의 「聖學十圖」와 같이 「進學圖」는 ‘圖’, ‘圖說’, ‘所引’, ‘附說’ 등의 先圖後說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는

데, 두 책을 검토해 본 결과, 총 9개 圖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退溪의 「聖學十圖」가 「進學圖」의 편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히기 위해 상호 관련성이 있는 9개 圖의 ‘圖’와 ‘圖說’을 상호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단, 圖說을 부연 설명한 ‘所引’과 圖說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밝힌 ‘附說’은 크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 「進學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와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

<太極圖>의 圖와 圖說은 원래 중국 북송의 사상가인 濂溪 周敦頤가 지은 것이다.¹²⁾¹³⁾ 먼저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의 圖(그림 2)는 周敦頤가 그린 <太極圖>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반면, 「進學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의 圖(그림 1)는 周敦頤의 <太極圖> 가운데 ‘太極’과 ‘陰陽’을 합쳐 1개의 그림으로 통합하고, 水·火·木·金·土 등 五行의 아래 부분에 있는 도표는 圖說의 내용에 맞추어 權春蘭이 그린 것이다.



<그림 1> 「進學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그림 2>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

12)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 “右濂溪周自作圖并說.”

13) 圖와 圖說은 「性理大全」 1卷의 <太極圖>에 수록되어 있다.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篇의 구분없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반면, 『進學圖』는 ① 太極化生萬物之本 ② 人得太極之理而最靈於物 ③ 聖人全太極之道而無所虧 ④ 君子小人於是其有善惡之分 등 4篇으로 대별하여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배치하고, 原文이 끝난 다음 행에 原註를 부기하였는데, 아래 <표 2>와 같이 『進學圖』는 원문의 내용에 출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圖說 비교

進學圖(圖說)	聖學十圖(圖說)
太極動而生陽 … 互爲其根	太極動而生陽 … 互爲其根[分陰分陽兩儀立焉]
陽變陰合 … 水火木金土	陽變陰合 … 水火木金土[五氣順布四時行焉 … 五行之生也各一其性]
無極之眞 … 二氣交感化生	無極之眞 … 二氣交感化生[萬物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惟人也得其秀 … 主靜立人極焉	惟人也得其秀 … 主靜立人極焉[故聖人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四時合其序鬼神合其吉凶君子修之吉小人悖之凶故曰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又曰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大哉易也斯其至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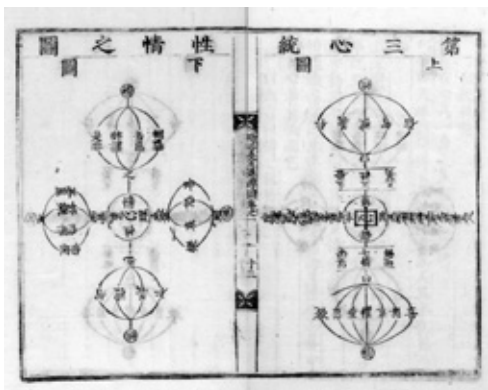
따라서 『進學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는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의 圖와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權春蘭이 圖와 圖說을 재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도상은 전체 진학도의 특징이 그렇듯이 좌우 대칭형의 구성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¹⁴⁾ 태극도의 비대칭적 음양변화는 그 연원이 된다. 특히 이러한 태극도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비롯하여 전통회화에서 원형구도법의 원형으로 꼽기도 한다.¹⁵⁾

14) 이태호, “20세기 초까지 전승된 개화형 사찰지도 -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의 전경도 및 그 형식적 연원에 대하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고지도연구』 2권 2호(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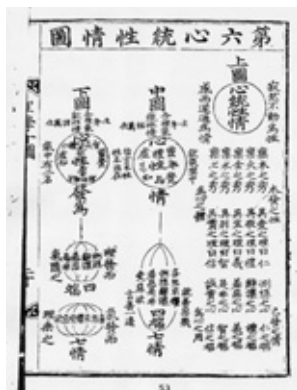
15) 유준영, “금강전도 고찰,”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고문화』 18호(1980), 13-24. ; 조민환, “태극음양론과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한국미학예술학회, 『미학·예술학연구』 17집(2003), 93-268

2) 「進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와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는 <心統性情圖>의 圖와 圖說은 원래 林隱 鄭復心이 지은 것으로,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에 수록된 圖는 李滉이 鄭復心이 그린 圖에 2개의 圖를 추가하여 그린 것이다.¹⁶⁾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의 圖(그림 4)는 上圖·中圖·下圖 등 3개의 圖로 편성되어 있는데, 上圖는 마음이 성과 정을 통제함을 다룬 것이며, 中圖는 기품 가운데 나아가도 본연의 성이 기품과 섞이지 않음을 가리킨 것¹⁷⁾이며, 下圖는 理와 氣를 합하여 말한 것¹⁸⁾이다. 반면에 「進學圖」 <第一 太極通體人事圖>의 圖(그림 3)는 上·下圖 2개의 圖로 上圖는 마음이 性·情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 것¹⁹⁾이며, 下圖는 마음이 性·情 및 理·氣를 통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²⁰⁾ 上圖와 下圖 모두 權春蘭이 도상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進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그림 4>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16)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右三圖上一圖林隱鄭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

17)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其中圖者就氣稟中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

18)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其下圖者以理與氣合而言之.”

19) 「進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卷1, 14張(右10行). “以上言情之包於心.”

20) 「進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卷1, 15張(右4行). “以上言心之統性情兼理氣.”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는 程復心과 長子の 說을 篇의 구분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마지막에 退溪 자신의 설을 小字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進學圖』는 ① 言性情之包於心 ② 言心之統性情兼理氣 등 두 篇으로 대별하고, ① 篇은 程子の 說을, ② 篇은 孟子·中庸·大學 등에 수록된 원문을 인용하고 각각의 원문 아래에 原註와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다.²¹⁾ 두 책에 수록된 도설을 상호 대조해 본 결과, 도설의 내용은 완벽히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聖學十圖』의 圖說에 수록된 長子の 설 가운데 아래 <표 3>과 같이 일부 내용이 『進學圖』의 所引에 程復心の 說로 인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방사형 공간구성법을 활용하였음이 눈에 띈다. 心자를 중심으로 上圖는 밖에서 안쪽으로 향해 구성되고, 下圖는 안에서 밖을 향해 구성해 놓았다. 이는 마치 河圖洛書의 사방시 개념을 도입한 듯하다.

<표 3> 「進學圖」 所引과 「聖學十圖」 圖說의 비교

進學圖(所引)	聖學十圖(圖說)
[林隱鄭氏曰]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必先正其心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	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必先正其心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

이상의 결과를 볼 때, 『進學圖』 <第三 心統性情之圖>는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의 편명과 거의 동일하지만,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圖는 權春蘭이 그린 것이며, 圖說은 程子の 說과 孟子·中庸·大學 등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음이 밝혀졌다.

3) 『進學圖』 <第四 張子西銘圖>와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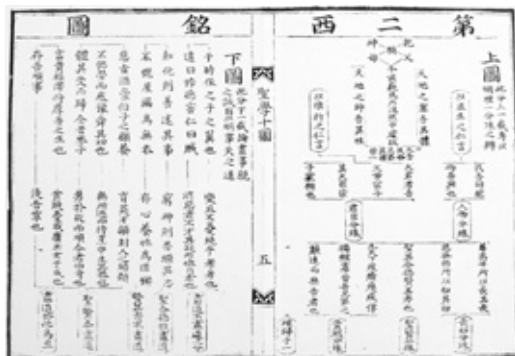
<西銘>은 원래 橫渠 張子(張載)가 지은 것으로, 처음 이름은 <訂頑>이었는데 程子(程復心)가 고쳐서 <西銘>이라 하였고, 林隱 程復心이 圖를 그렸다.²²⁾²³⁾

21) 宋日基·盧基春, “權春蘭의 『進學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6), 164.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의 圖(그림 6)는 上圖와 下圖 2개의 圖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上圖는 理一分殊의 구분을 밝히고 있고,²⁴⁾ 下圖는 어버이를 섬기는 성심을 다 논술함으로써 하늘 섬기는 도를 밝히고 있는데,²⁵⁾ 2개의 圖 모두 元의 程復心이 그린 上圖와 下圖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반면 「進學圖」 <第四 張子西銘圖>의 圖(그림 5)는 程復心이 그린 上圖와 下圖를 한 개의 圖로 간략히 정리, 재편하였는바, 크게 ‘理一’, ‘分殊’, ‘總結’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進學圖」 <第四 張子西銘圖>의 圖는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의 圖를 기초로 하되, 이를 간략히 재편하여 새롭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進學圖」
<第四 張子西銘圖>



<그림 6>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는 張載가 쓴 「西銘」의 原文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進學圖」는 크게 ① 明理一 ② 言分殊(前一節, 後一節, 做工夫處) ③ 總結一篇之大義 등 총 6篇으로 대별하여 張載의 「西銘」 原文을 그대로

22)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 “右銘橫渠張子所作初名訂頑程子改之爲西銘林隱程氏作此圖.”

23) 圖와 圖說은 모두 胡廣 등이 편찬한 「性理大全書」 卷4에 수록되어 있다.

24) ‘上圖’라는 圖名 바로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표기됨. “此分上一截專以明理一分殊之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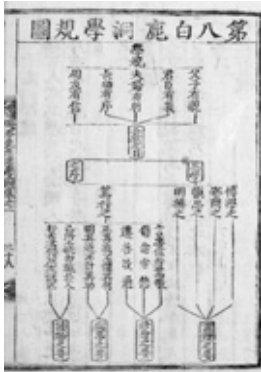
25) ‘下圖’라는 圖名 바로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표기됨. “此分下一截論盡事親之誠因以明事天之道.”

인용하고, 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附記하였다.

따라서 『進學圖』 <第四 張子西銘圖>의 圖는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의 圖를 기초로 하되, 이를 간략히 재편하여 새롭게 그린 것이며, 圖說은 『聖學十圖』의 圖說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하였음이 밝혀졌다.

4) 『進學圖』 <第八 白鹿洞學規圖>와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白鹿洞規>²⁶⁾는 朱熹가 저술하여 白鹿洞書院의 학생들에게 제시한 것²⁷⁾이며, 圖는 이황이 ‘白鹿洞規文’의 본래 조목에 의거하여 보고 살피는데 편리하도록 그린 것이다.²⁸⁾ 먼저 두 책의 圖를 상호 비교해 보면, 『進學圖』 <第八 白鹿洞學規圖>의 圖(그림 7)는 맨 위의 ‘學規’와中间的 ‘爲學之序’를 추가하고, 아울러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의 圖의 좌측에 있는 ‘五教之目’을 ‘學規’ 아래로 배치하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 退溪가 그린 <白鹿洞規圖>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²⁹⁾



<그림 7> 『進學圖』 <第八 白鹿洞學規圖> <그림 8>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26) 原題는 ‘白鹿洞書院揭示’이며, 原文은 『朱子大全』 卷74에 수록되어 있다.

27)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右規朱子所作以揭示白鹿洞書院學者.”

28)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 “臣今謹依規文本目作此圖以便觀省.”

29) 본 논고에서 제시한 <그림 8>의 하단 부분에는 ‘窮理之要’만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刊本에는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가 모두 표기되어 있다.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의 圖說名은 ‘洞規後敍’³⁰⁾이며, 圖說은 朱熹가 <白鹿洞規>를 지은 후에 저술한 <洞規後敍>의 原文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반면에 「進學圖」의 圖說名은 ‘白鹿洞學規’이며, 圖說은 朱熹의 <白鹿洞規> 原文을 ① 五教之目 ② 爲學之序 ③ 修身之要 ④ 處事之要 ⑤ 接物之要 등 5篇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수록하고, 각 原文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進學圖」의 所引에는 「聖學十圖」의 道說에 수록된 朱熹의 <洞規後敍>를 수록하였는데, <洞規後敍>를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아래 <표 4>와 같이 일부 문장을 누락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 글자를 추가 또는 대체하는 등의 재편 과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4> 「進學圖」 所引과 「聖學十圖」 圖說의 비교

進學圖(所引)	聖學十圖(圖說)
[朱子曰]熹竊觀古昔聖賢 … 莫非[使之]講明義理 … 而已[也]今[人]之爲學者[則]既反是矣	熹竊觀古昔聖賢 … 莫非講明義理 … 而已今之爲學者[則]既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 苟知[其]理之當然 … 而後有所持循哉	然聖賢所以教人之法 … 苟知理之當然 … 而後有所持循哉
[其]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愼][而]恐懼者必有嚴於彼者也	[近世於學有規 … 而揭之相間諸君]
	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謹]恐懼者必有嚴於彼者也
	[其有不然而或出於 … 諸君其念之哉]

이상과 같이 「進學圖」 <第八 白鹿洞學規圖>의 圖는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의 圖를 기본으로 權春蘭이 약간 재편, 도상화 하였지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책의 圖說을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는 朱熹가 지은 <洞規後敍>를 인용한 반면, 「進學圖」는 朱熹의 <白鹿洞規>를 기본으로 權春蘭이 새롭게 편찬하였음이 밝혀졌다.

30) 「朱子大全」 卷74의 <白鹿洞書院揭示>에는 ‘洞規後敍’라는 副題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본 논고에서는 「聖學十圖」에 수록된 ‘洞規後敍’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5) 『進學圖』 <第九 敬齋箴圖>와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

心を 중심에 두고 敬을 실천하는 자세와 방법을 다룬 <敬齋箴>³¹⁾은 朱熹가 張軾³²⁾의 <主一箴>³³⁾을 읽고 그 남은 뜻을 주워 모아 쓴 <敬齋箴>이라는 글에 王柏(1197-1274)이 圖를 그린 것이다.³⁴⁾ 먼저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의 圖는 ‘心’을 중심에 두고 내용과 소재목이 상하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進學圖』 <第九 敬齋箴圖>의 圖는 ‘心’을 중심에 두고 내용은 위에 두고, 소재목은 아래에 下에 두는 배치상의 차이점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進學圖』의 圖는 王柏이 그린 圖를 그대로 채택한 『聖學十圖』의 圖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進學圖」 <第九 敬齋箴圖> <그림 10>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

圖說을 살펴보면, 『聖學十圖』는 朱熹의 <敬齋箴>을 그대로 인용한 반면, 『進學圖』는 <敬齋箴>을 ① 靜時敬 ② 動時敬 등 총 10篇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31) 원문은 『朱子全書』 85卷과 『性理大全』 70卷, 그리고 『心經附註』 末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32) 張軾(1133-1180)의 호는 南軒, 자는 敬夫이다.

33) 원문은 張軾이 지은 『南軒集』과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34)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 “右箴題下朱子自敘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意作敬齋箴 … 而金華王魯齋(柏)排列地頭作此圖 …”

신고, 각 原文의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所引은 「聖學十圖」는 朱子·臨川 吳氏·西山 眞氏의 설을 인용하여 편성한 반면, 「進學圖」는 「聖學十圖」의 所引에 수록된 臨川 吳氏의 글을 大要로 옮기고, 所引에는 西山 眞氏의 글만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附說은 「聖學十圖」에 수록된 退溪의 附說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自說을 추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進學圖」〈第九 敬齋箴圖〉의 圖와 圖說, 그리고 所引은 편성체계에서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聖學十圖」〈第九 敬齋箴圖〉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밝혀졌다.

6) 「進學圖」〈第十 夙興夜寐箴圖〉와 「聖學十圖」〈第十 夙興夜寐箴圖〉경을 중심에 두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夙興夜寐箴〉³⁵⁾ 원래 南塘 陳柏³⁶⁾이 지어 스스로 경계를 삼은 것으로, 退溪가 魯齋(王柏)의 〈敬齋箴圖〉를 모방하여 〈夙興夜寐箴圖〉를 그려 〈敬齋箴圖〉와 상대하게 한 것이다.³⁷⁾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進學圖」〈第十 夙興夜寐箴圖〉의 圖(그림 11)는 退溪가 그린 「聖學十圖」〈第十 夙興夜寐箴圖〉의 圖(그림 12)를 거의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圖說을 살펴보면, 「聖學十圖」는 陳茂卿 지은 〈夙興夜寐箴〉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반면, 「進學圖」는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① 夙寤 ② 晨興 ③ 讀書 ④ 應事 ⑤ 日乾 ⑥ 夕陽 ⑦ 夙夜總結一篇 등 7篇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신고, 그 아래에 說明註를 부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附說은 「聖學十圖」의 附說에 수록된 退溪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自說을 추가하여 편성하였다.³⁸⁾

35) 이황 저,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한국고전총서3 (서울: 홍익출판사, 2004), 105.

36) 자는 茂卿, 호는 南塘이다.

37) 「聖學十圖」〈第十 夙興夜寐箴圖〉. “右箴南塘陳茂卿柏所作以自警者 … 臣今謹備魯齋敬齋箴圖作此圖以與彼圖相對.”

38) 宋日基·盧基春, “權春蘭의 「進學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6),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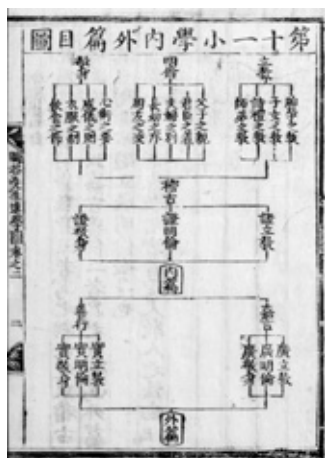
따라서 『進學圖』 <第十 夙興夜寐箴圖>와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의 圖와 圖說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進學圖』의 圖說은 7개의 篇으로 구분하여 原文에 대한 註를 부기하고, 附說에 權春蘭의 自說이 추가되어 있지만, 圖와 圖說 모두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1> 『進學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그림 12>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7) 『進學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와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
 『小學』은 원래 朱熹가 저술한 것으로,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의 圖는 『小學』의 목차에 의거하여 退溪가 圖象化한 것³⁹⁾이다. 먼저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進學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의 圖(그림 13)가 內篇과 外篇으로 나누어 圖象化한 것을 제외하고는 退溪가 그린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의 圖(그림 14)를 거의 그대로 채용했음을 알 수 있다.

39)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 “右小學古無圖臣謹依本書目錄爲此圖.”



<그림 13> 「進學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그림 14>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

圖說을 살펴보면, 「聖學十圖」는 朱熹가 저술한 「小學」 가운데 <小學題辭>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進學圖」는 <小學篇目>과 <小學題辭>, <小學書題>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所引은 두 책 모두 朱熹의 「大學或文」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進學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와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의 圖와 圖說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進學圖」의 圖는 退溪가 그린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의 圖를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圖說은 「聖學十圖」의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朱熹의 「小學」에 수록된 <小學篇目>과 <小學書題>를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였음이 확인되었다.

8) 「進學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와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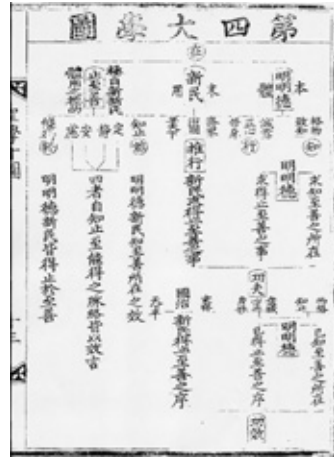
「大學」은 孔子가 말씀하신 것을 曾子가 記述하고, 曾子의 뜻을 門人이 기록한 것⁴⁰⁾으로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의 圖는 朝鮮 初의 陽村 權近이 그린 <大

40) 「大學章句大全」. “右經一章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其傳十章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

學圖>를 李滉이 약간 수정하여 『聖學十圖』에 수록한 것⁴¹⁾이다. 먼저 두 책에 수록된 圖를 상호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의 圖가 『大學章句大全』의 ‘經文’을 기본으로 한 것에 반해, 『進學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의 圖는 『大學章句大全』의 ‘傳文’을 바탕으로 도상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5> 「進學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그림 16>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는 朱熹의 『大學章句大全』 가운데 ‘大學經文’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반면, 『進學圖』는 본문을 ① 言知不至則意不誠 ② 言知至後又不可不誠意 ③ 言誠意然後能正心 ④ 言既誠意又須正心 등 총 4篇으로 대별하여 『大學章句大全』의 ‘經文’과 ‘傳文’, 그리고 ‘原註’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說明을 細註로 병기하여 확대, 재편하였는데, 주로 『大學章句大全』의 ‘傳文’이 인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進學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의 圖는 權春蘭이

41)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 “右孔氏遺書之首章國初臣權近作此圖.”

독자적으로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에 수록된 「大學章句大全」, 「經文」을 일부 인용하고, 여기에 「大學章句大全」의 「傳文」을 인용하여 확대, 개편하였음이 확인되었다.

9) 「進學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와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

「仁說」은 仁道를 밝힌 것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것으로, 朱子가 짓고 스스로 도를 그린 것⁴²⁾이며,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는 朱子の <仁說圖>와 <仁說>⁴³⁾을 합한 것이다.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의 圖는 朱熹가 그린 <仁說圖>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나, 「進學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의 圖는 朱熹의 <仁說> 일부를 문장의 형태로 인용하여 圖의 위쪽 부분인 「總說」로 배치하고, 「總說」의 아래에는 「論語」에서 仁에 관한 내용을 초략하여 기술한 圖說을 기초로 圖를 작성한 것이다.



<그림 17>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그림 18>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

42) 「聖學十圖」 <第七仁說圖>. “右仁說朱子所述并自作圖發明仁道無復餘蘊.”

43) 「性理大全」 卷35에는 朱子の <仁說圖>와 <仁說>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圖說을 비교해 보면, 『聖學十圖』는 朱子の <仁說>을 초략하여 정리한 반면, 『進學圖』는 ① 總說仁之體用, ② 一截 爲仁, 鮮仁, 近仁 ③ 二截 親仁, 處仁, 輔仁, 友仁 ④ 三截 仁道至大 ⑤ 四截 爲仁之道 ⑥ 五截 成仁之事 ⑦ 六截 子路顏淵孔子之仁 등 7篇으로 대별하고, 이 가운데 ①편은 『聖學十圖』에 수록된 朱子の <仁說>을 인용하였으나, 아래 <표 5>와 같이 약간의 출입이 있다. 그리고 ②~⑦편은 『論語』의 學而, 爲政, 里仁, 公治長, 雍也, 顏淵, 子路, 憲問, 衛靈公, 陽貨, 微子 등의 篇에서 仁에 관한 내용을 초략하여 기술한 것이다.⁴⁴⁾

<표 5> 「進學圖」와 「聖學十圖」圖說의 비교

進學圖	聖學十圖
朱子曰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之所以爲心[者也]	朱子曰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之所以爲心
未發之前四德具焉而仁則包乎四者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	未發之前四德具焉而[惟]仁則包乎四者[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
已發之際四端著焉而惻隱則貫乎四端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是以周流貫徹無所不通]	已發之際四端著焉而惟惻隱則貫乎四端[是以周流貫徹無所不通]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
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	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
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	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
公所以體仁蓋公則仁仁則愛	公[者]所以體仁[猶言克己復禮爲仁也]蓋公則仁仁則愛
孝悌其用也而恕其施也知覺乃知之事	孝悌其用也而恕其施也知覺乃知之事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進學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의 圖는 權春蘭이 독자적으로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에 수록된 朱子の <仁說>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論語』의 學而, 爲政, 里仁, 公治長, 雍也, 顏淵, 子路, 憲問, 衛靈公, 陽貨, 微子 등의 篇에서 仁에 관한 내용을 초략하여 확대, 개편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4) ② 一截 爲仁, 鮮仁, 近仁 - 學而, 子路 ③ 二截 親仁, 處仁, 輔仁, 友仁 - 學而, 里仁, 顏淵, 衛靈公 ④ 三截 仁道至大 - 公治長, 爲政, 憲問 ⑤ 四截 爲仁之道 - 雍也, 子路, 顏淵, 陽貨 ⑥ 五截 成仁之事 - 憲問, 微子 ⑦ 六截 子路顏淵孔子之仁 - 公治長.

이상과 같이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圖와 圖說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9개 圖에서 圖와 圖說이 상호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두 책의 圖를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의 圖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수정 보완하여 「進學圖」에 채용한 것은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四 張子西銘圖>, <第八 白鹿洞學規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등의 6개 圖이며, 權春蘭이 독자적으로 도상화 한 圖는 <第三 心統性情之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등 3개 圖로 밝혀졌다.

圖說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聖學十圖」는 編의 구분 없이 저자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설을 편성하였으나, 「進學圖」는 모두 編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原文 아래에 권춘란의 註를 부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보완 확대하여 재편한 것은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四 張子西銘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등 7개 圖說이며, <第三 心統性情之圖>와 <第八 白鹿洞學規圖>의 圖說은 완전히 다른 글로 대체하여 편찬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進學圖」는 退溪의 「聖學十圖」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圖와 圖說을 적절히 보완하여 재편하거나, 또는 圖와 圖說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편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6>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圖와 圖說의 비교

進學圖			聖學十圖		
圖名	圖像者	圖說者 및 原典	圖名	圖像者	圖說者 및 原典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周敦頤 *權春蘭再編	周敦頤 *權春蘭再編	第一 太極圖	周敦頤	周敦頤
第三 心統性情之圖	程復心 李滉 *權春蘭再編	程復心/孟子/中庸/ 大學 *權春蘭再編	第六 統性情圖	程復心 李滉	程復心/長子/ 李滉

進學圖			聖學十圖		
圖名	圖像者	圖說者 吳 原典	圖名	圖像者	圖說者 吳 原典
第四 長子西銘圖	程復心 *權春蘭再編	張載 *權春蘭再編	第二 西銘圖	程復心	張載
第八 白鹿洞學規圖	李滉 *權春蘭再編	朱熹〈白鹿洞規〉 *權春蘭再編	第五 白鹿洞規圖	李滉	朱熹 〈白鹿洞規後敘〉
第九 敬齋箴圖	王柏 *權春蘭再編	朱熹 *權春蘭再編	第九 敬齋箴圖	王柏	朱熹
第十 夙興夜寐箴圖	李滉 *權春蘭再編	陳茂卿 *權春蘭再編	第十 夙興夜寐箴圖	李滉	陳茂卿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李滉 *權春蘭再編	朱熹〈小學題辭〉〈小學書題〉 *權春蘭再編	第三 小學圖	李滉	朱熹〈小學題辭〉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權春蘭	朱熹「大學章句大全」 *權春蘭再編	第四 大學圖	權近 李滉	朱熹 「大學章句大全」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權春蘭	朱熹〈仁說〉/「論語」 *權春蘭再編	第七 仁說圖	朱熹	朱熹〈仁說圖〉 〈仁說〉

4. 結論

지금까지 權春蘭이 편찬한 『進學圖』의 독창성 여부를 밝혀보기 위해 『進學圖』와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 및 圖와 圖說을 분석,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聖學十圖』는 天道와 心性の 근본 위에 人倫과 敬을 각각 실현해 나가는 2분 구조(1-5圖, 6-10圖)와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보고 이를 표준, 근원지우는 구조와 학문의 발이며 결과인 구조로 이루어진 3분 구조(1-2圖, 3-4圖, 5-10圖) 등 2개의 구조로 모두 聖人의 學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다. 반면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 → 其他 등의 5분 구조로 초학자들이 단계별로 학문을 닦아 나가는 단계별 편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進學圖』의 편성 구조는 『聖學十圖』의 편성 구조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두 책의 편성 구조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책 모두 첫 머리에 우주의 생성 원리인 <太極圖>를 배치하여 南宋의 周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近思錄」에서 <太極圖>를 첫머리에 두는 학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셋째, 편성 구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聖學十圖」의 2分 구조에서는 天道와 心性の 근본 위에 人倫과 敬을 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人倫과 德業을 다룬 2·3·4·5圖는 天道를 다룬 1圖의 다음에 편성하고, 敬을 세우는 8·9·10圖는 心性を 다룬 6·7圖의 다음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進學圖」는 宇宙論(天道) → 心性論 → 用工先後論 → 聖人教訓論의 편성 구조이기 때문에 「聖學十圖」에서 心性を 다룬 6·7圖를 앞으로 당겨 2·3圖에 배치하였고, 「聖學十圖」에서 人倫과 德業을 다룬 2·3·5圖와 敬을 다룬 9·10圖를 「進學圖」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다룬 用工先後論에 4·8·9·10圖로 배치하고, 「聖學十圖」의 4圖는 聖人教訓論의 11圖에 편성하였다.

넷째, 「聖學十圖」의 3分 구조에서 退溪는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삼아 3·4圖에 배치하였으나, 「進學圖」에서는 小學과 大學을 학문의 중심으로 특정화 하지 않고, 小學은 실천규범을 다룬 用工先後論에, 大學은 經典을 공부하는 聖人教訓論에 각각 분리 배치하였다. 다만 小學과 大學을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小學은 用工先後論의 末인 11圖에 배치하고, 大學은 聖人教訓論의 첫 편인 12圖에 편성하였다.

다섯째,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圖를 비교해 본 결과, 「聖學十圖」의 圖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수정 보완하여 「進學圖」에 채용한 것은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四 張子西銘圖>, <第八 白鹿洞學規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등의 6개 圖이며, 權春蘭이 독자적으로 도상화 한 圖는 <第三 心統性情之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등 3개 圖로 밝혀졌다.

여섯째, 「聖學十圖」와 「進學圖」의 圖說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聖學十圖」는 編의 구분 없이 저자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설을 편성하였으나,

『進學圖』는 모두 編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原文 아래에 권춘란의 註를 부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이 가운데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說을 기본으로 하되, 權春蘭 이를 보완 확대하여 재편한 것은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四 張子西銘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등 7개 圖說이며, <第三 心統性情之圖>와 <第八 白鹿洞學規圖>의 圖說은 완전히 다른 글로 대체하여 편찬하였음이 밝혀졌다.

여덟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進學圖』는 退溪의 『聖學十圖』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圖와 圖說을 적절히 보완하여 재편하거나, 또는 圖와 圖說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도상은 도면들의 공간구성법은 좌우대칭형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음양태극도 같이 좌우가 약간 다른 비대칭형이 동시에 구사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법은 우리 전통회화의 화면운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第三 心統性情之圖>의 방사형 구성방식은 18세기 중엽 이후의 도성도나 19세기의 묘산도나 군현지도에 유행하는 개화형 사방시법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처럼 퇴계의 『聖學十圖』에 이어 권춘란의 『進學圖』에 보이는 도면운영 방식이 조선시대 회화의 구도와 일치하고 있음은 동시대의 유교적 이념과 미의식이 유사하게 표출됨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1. 古典資料

『論語』.

『大學』.

『大學或文』.

『大學章句大全』.

『南軒集』.

『孟子集註』.

『孟子』.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影印)文淵閣四庫全書 卷711.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聖學十圖』.

『小學』.

『朱子大全』.

『朱子全書』.

『朱子增損呂氏鄉約』.

『中庸章句大全』.

『進學圖』.

2. 單行本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황 저,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한국고전총서3. 서울: 홍익출판사, 2004.

이황 지음, 최영갑 풀어씀. 『성학십도: 열가지 그림으로 읽는 성리학』. 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5.

3. 論文

宋日基·盧基春, “權春蘭의 『進學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6). 151-183.

유권중. “중국 유학의 도설과 의의.” 『中國學報』 제53집(2006).

유권중. “『입학도설』과 조선유학도설.” 『철학연구』 제21집(2007. 5). 5-39.

유권중.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철학탐구』 제26집(2009. 12). 1-33.

유권중. “유교도상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儒學研究』 제20집(2009. 12). 301-333.